시설 가지에서 발생하는 아메리카잎굴파리 발생소장과 *Neochrysocharis formosa* (Hymenoptera : Eulophidae)를 이용한 밀도억제 효과

문형철, 류 정, 고복래[1], 황창연[2]
전북농업기술원 고창수박시험장, [1]전북농업기술원 생물환경연구과,
[2]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시설 가지에서 발생하는 아메리카잎굴파리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주요 재배지역인 전주와 완주 지역 관행재배 농가포장에서 황색끈끈이 트랩을 이용하여 발생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가지를 5월과 8월에 정식하여 아메리카잎굴파리 우점기생봉인 *Neochrysocharis formosa*를 이용한 밀도억제효과를 조사하였다.

시설 가지에서 아메리카잎굴파리 성충은 3월 하순에 유충은 4월 상순에 각각 발생 최성기를 나타냈으며 이후 약제 방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방제가 소홀한 6월 중순 이후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아메리카잎굴파리 밀도 억제를 위하여 *N. formosa*를 주당 암컷 2마리 비율로 해충 발생 초기에 7일 간격으로 3회 방사한 5월 정식구에서는 3차 방사 2주 후부터 아메리카잎굴파리의 밀도가 감소되기 시작하여 엽당 0.5마리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기생률은 80~90% 정도로 밀도 억제 효과가 아주 높았다. 그러나 정식 이후 아메리카잎굴파리 발생이 많아 *N. formosa*를 4회 방사한 8월 정식구에서는 밀도가 완만하게 증가 하였으나 10월 중순 이후 무방사구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엽에서의 유충밀도가 적어 밀도 억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생률은 50~70% 정도이었다.